

폭발물 탐지·실종자 수색... '제2의 소백이' 들 맹훈련

〈화정 아이파크 구조·탐색전〉

르포-호남119특수구조대 전국 첫 특수견 합동훈련 현장

경찰견·구조견·철도견 등 6마리 참여 이룬 교육·실습 진행 오늘 지진 상황 모의훈련...재난현장 원활한 공동대응 기대

"토르, 흠(앞으로 가)", "포비, 뛰어."

23일 오후 화순군에 있는 호남 119특수구조대 본부에서는 대형견 6마리가 구조대원의 호명과 지시에 따라 분주하게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훈련을 하고 있었다.

호남 119특수구조대의 '지진 대비 호남권역 특수목적견(이하 특수견) 합동 훈련'이다.

전국 최초로 열린 특수견 합동훈련으로, 광주·전남·전북 등지의 소방, 경찰 등 10개 기관에서 20여 명의 핸들러(Handler)와 6마리의 특수견이 참여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당시 실종자 대다수를 발견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소백'이의 뒤를 잇는 전국역의 특수견들이 한 데 모인 것이다.

훈련 내용은 건물 붕괴사고 발생 시 인명을 탐지하거나 테러 상황에 대비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등 수색 기법을 터득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4시간동안 이어진 실습 훈련 현장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광주 철도경찰 폭발물탐지견인 토르(3·레브라도리트리버)는 구조대원의 지시를 받기 무섭게 나무 상자에 얼굴을 묻고 TNT 폭약을 찾는데 집중

했다.

토르는 훈련장에 미리 준비된 3개의 나무 상자 중 1개에만 들어 있는 모형 TNT폭약을 찾아내야 했다. 토르는 능숙하게 상자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5번 연속으로 폭발물이 든 상자를 찾아냈다.

운동장 중앙에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당시 투입됐던 특수견 포비(7·저먼 셰퍼드)와 페리(7·셰퍼드)도 훈련에 열중하고 있었다.

구례소방 산악구조대 소속인 포비는 잔디에 코를 묻고 냄새만으로 목표물을 발견하는 훈련을 했다. 코를 쫓으며 목표물을 찾던 포비는 목표물 근처에 다다르자 제자리에 멈춰섰다. 구조대에게 '구조 대상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호남119특수구조대 소속인 페리는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 제대로 걷기 어려운 곳에서도 수색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극복훈련을 했다. 페리는 운동장에 마련된 장애물 코스에 뛰어들어 오르막길을 오르고, 터널을 통과하는가 하면 허들을 뛰어넘기도 했다.

훈련에 참여한 구조대원들은 최근 특수 재난사고에서 특수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 1월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23일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지진대비 호남권역 특수목적견 합동훈련'에 참여한 특수견이 핸들러의 지시에 따라 장애물에 오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발생한 총 7명의 실종자 중 4명을 특수견 '소백'이 발견하면서 특수견의 임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소백이는 지난 1월 은퇴후 입양돼 평범한 반려견이 됐지만 입양된 지 12일 만에 죽었다.

김창수 호남119소방대장은 "소백이의 맥을 잇는

특수견들이 호남 지역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소속을 뛰어넘어 한 자리에 모인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재난현장에 투입됐을 때 서로 협력해 공동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련은 이론교육, 실습으로 나뉘어 1

박 2일간 진행된다. 훈련 2일차인 24일에는 화순군 춘양면 춘곡무인교육원에서 지진이 일어나 구조물이 무너지고 일부 침수된 폐교 환경을 조성해 실제 현장에 투입됐을 때 특수견의 역할에 대한 훈련을 진행한다.

/화순=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파리만 날리는' 전남 농촌테마공원들

화순 농업농촌테마공원 하루 방문객 1.2명...구례 지리산 호수공원 3.3명

수십억원을 투자한 전남 지역 일부 농촌테마공원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농식품부의 주요 농촌관광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개장한 화순 유전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은 일평균 방문객이 1.2명(총방문객 34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2012년 문을 연 구례군 지리산호수공원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3.3명에 불과했고, 2015년 문을 연

장성군 유평지구농어촌테마공원은 하루에 7명꼴로 다녀갔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국비 25억 원 등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0명도 방문하지 않은 테마공원이 있는 것이다.

지난 2021년 개장한 곡성 영운공원은 하루평균 16명이 다녀갔다. 진도 운림삼별초공원은 67명, 영광 불갑농촌테마공원은 69명, 광주시 남구 빛고를 농촌테마공원은 162명, 담양 메타세콰이어랜드는

1190명 손으로 많은 방문객이 탐방했다.

농식품부는 "대부분의 농촌관광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추진·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권한을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기존 농촌관광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것에 대해 지방이양 사무라고 나무라라 하면서, 기존 사업과 아무런 차별점이 없는 농촌관광사업을 표지만 바뀌서 추진한다고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8명 '수도권 출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0명 중 8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전국 로스쿨 신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평균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

로 확인됐다.

전남대 로스쿨의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5년 평균 77.16%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76.38%, 2020년 75.41%, 2021년 77.59%, 2022년 74.05%, 2023년 82.40%였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출

신 신입생도 6.86%에 달했다.

로스쿨 신입생 고교 출신을 분석한 결과 전남대는 5년 평균 44.98%가 수도권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신입생은 각각 소위 '스카이'(SKY) 대학 출신이 95%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5%는 경정대, 카이스트 등 특수대학 출신으로 분석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악성민원, 학교장이 대응해야" 92.6%

광주 지역 교사 500명 설문... "학생 분리 장소는 교장실" 70%

광주지역 교사 10명 중 9명은 학교 악성민원 대응과 분리학생 지도 등에 대해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교조 광주지부, 실천교육교사모임, 광주교사노동조합 등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다. 유·초·중·고 교사 500명이 광주시교육청의 교권보호정책 관련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했다.

조사결과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꼭 반영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정책을 꼽으라'는 질문(복수응답)에 악성민원 대응 업무 관련 학교장 책무 명시 455명(91.0%), 교육활동 방해 학생 학교장 책무(분리학생 지도·징계 등) 명시 455명(91.0%) 등으로 답했다.

이어 교원배상 책임보험 특약 강화 405명(81.0%), 피해 교원 치료 및 법률지원 강화 386명(77.2%),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원스톱 콜센터 운영 376명(75.2%) 등을 꼽았다.

또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분리 장소는 어

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52명(70.4%)이 교장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교무실 98명(19.6%), 학년연구실 10명(2.0%)이었다.

'학생 분리 시 제1차 분리담당자(인계 및 지도)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복수응답)는 질문에는 교장 322명(64.4%), 교감 272명(54.4%), 상급교사 39명(7.8%) 순이었다.

'학교 구성원 중 누가 악성민원 대응을 담당해야 하는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교장(463명, 92.6%)을 압도적 1위로 꼽았다. 이어 교감 111명(22.2%), 교육청 6명(1.2%)으로 답했다.

이들 교육 3단체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와 악성민원 응대와 관련한 학교장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최우선 보장하는 교권보호 강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